2010-08
통권 287호

Trust Talent Tenacity Togetherness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3. 02 (火)

경제이슈
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 상승
2월 제조업 체감경기 7년 만에 최고 기록

경영노트
마케팅의 행동경제학

사회트랜드
뉴 서티 맨(New Thirty Man)
스키族

차이나 리포트
중국 인력난 심각, 저렴한 인건비 더 이상 기대 못해

저널브리프
창의적 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

洗心錄
소련 붕괴가 21세기에 주는 교훈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경제이슈

□ 美, 1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 상승

■ **美 노동부가 19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로 하락세를 나타냄**

- **식료품** : 식료품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률을 나타냄
- **에너지** :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2.8% 상승률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특히 가솔린의 상승률은 4.4%를 기록함
- **신규 자동차** : 신규 자동차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근원 소비자물가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품목의 물가를 산출한 지표임

■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미미하고 이에 따라서 당분간 통화정책 변화에 인플레이션 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월 제조업 체감경기 7년 만에 최고 기록

■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 조사결과'(26일)에 따르면 제조업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

- **제조업 BSI 최고 기록** : 2월 제조업체들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4로 전월대비 1p 상승하여 2002년 4분기의 96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3월 업황 전망 BSI도 101로 전월대비 9p 상승
-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업황 개선:** 2월 중소기업 BSI는 92로 전월대비 2p, 수출기업은 100으로 6p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97로 전월 대비 2p, 내수기업도 92로 3p 하락함
- **인력사정과 자금사정은 악화** : 인력사정 BSI는 89로 전월대비 4p 떨어져 인력 부족을 느끼는 기업이 증가하였고, 자금사정BSI도 89로 전월대비 3p 하락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 **최근 유럽재정 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 기조로 국내 기업들이 향후 경기회복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마케팅의 행동경제학[1)]

■ **(정의) 행동경제학이란 인간의 경제행위가 항상 이성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인간의 실제 행동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임**

-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경제학이 경영의사 결정을 위한 보완의 역할로서 주목 받고 있음

■ **이미 마케팅 전문가나 소매 상인들은 행동경제학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판매 증대 기술을 펼쳐왔음**

- '원 플러스 원'과 같은 마케팅은 굳이 행동경제학의 소비자 심리를 공부하지 않고도 이미 오래 전부터 모든 시장에서 활용해온 판매 기술임

■ **기업 경영에서도 이미 행동경제학의 기술들인 지불 부담의 해소, 소유욕의 자극, 선택의 가짓수의 축소 등이 활용되고 있음**

< 마케팅에서 이용하는 행동경제학의 네 가지 기술 >

	내 용
당장의 지불 부담을 없애라	• 구매 이후 실제 돈을 지불하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당장 지불의 고통이 없기 때문임 • 신용카드 회사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소비자의 지불 계획, 지불 현황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은 지불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부가 혜택을 제공하라	• 서비스 구매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은 소비자의 소유 욕구와 연계시킬 때 효과가 극대화됨 • 이탈리아의 통신업체는 '100회 무료 통화 제공됩니다'란 문장을 '제공된 100회 무료 통화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로 바꾸고 소비자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율을 높였음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라	• 선택의 종류가 많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가중시키며, 구매 후에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움 • 실제로 26개의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것과 6개의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비교 실험에서 후자의 판매가 다섯 배 많았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하라	• 소비자는 구매 전 선택 시 제품이 가격 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극단적인 가격의 선택을 피하려함 • 레스토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와인은 그 레스토랑에서 두 번째로 비싸거나 두 번째로 저렴한 와인임

1) 본 자료는 Mckinsey Quarterly(2010년 2월)의 'A marketer's guide to behavioral economics'를 요약 정리함.

□ 뉴 서티 맨(New Thirty Man)[2)]

■ **X세대로 불리던 1970년대 출생 남성들이 30대가 되면서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 '뉴 서티 맨'(새로운 30대 남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낳고 있음**

- 이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남성들로 자신들이 원한다면 명품이나 수입차 등 고가의 제품을 사는 데 주저하지 않음
- 이들은 70년대 태어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199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자기를 꾸미는 데 관심을 가진 첫 세대임

■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졌고 '소비는 경제를 끌고 가는 동력'이라는 가치관도 고가제품 구입에 영향을 미침**

- 롯데백화점의 경우 남성고객이 명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대가 2007년에 32.8%였으나 2009년에는 41.2%로 급증
- 수입차 등록현황을 보면,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는 26.8%였으나 2007년에 31.6%, 2009년에는 36.4%까지 증가
- 아이폰 구매 고객 중 35%가 30대인 것으로 집계돼 얼리어답터 성향도 뚜렷

□ 스키족[3)]

■ **스키(SKI, Spending the Kid's Inheritance)족이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남길 생각은 않고 외모와 자기만족을 위해 돈을 쓰는 미국의 중년여성을 지칭하는 말**

- 이러한 스키족 현상의 주원인으로 안젤리나 졸리, 샤론 스톤, 데미 무어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일상화된 성형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성형수술을 선택한 건 배우 자신이지만, 젊은 육체에 탐닉하는 할리우드 분위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의견도 있음

---

2) "New Thirty Man 소비의 큰 손 떠오른다"(문화일보, 2010.2.22) 참조
3) "美 스키족, 성형 위해 유산 상속 없다"(헤럴드경제, 2010.2.23) 참조

□ 중국 인력난 심각, 저렴한 인건비 더 이상 기대 못해

■ **(개요) 2010년 들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연해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중국 인력시장은 '취업난(用工慌)'에서 '인력난(用工荒)'으로 상황이 돌변함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중국 인력 시장에 인력 부족 현상이 대두됨
  - · 올해 중국의 인력난은 경제가 발달한 동남 연해지역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노무 인력의 공급지인 안휘성과 같은 내륙 지역으로 확산됨

- 인력난 심화로 중국 각 지역에서는 농민공(農民工)에 대한 임금 인상이 현실로 나타남
  - · 따라서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중국의 인구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특징) 중국의 인력난 현상은 지역별로는 주강삼각주 및 장강삼각주, 산업별로는 임가공업과 서비스업에서 특히 심각함**

- 주강삼각주의 경우 광주, 동관, 심천 세 곳에서만 120만 명 이상의 인력 공백이 발생, 광동성 전체로는 부족 인력이 200만 명에 달함

- 특히 전기전자, 기계제조, 제화 및 방직 분야와 물류 택배업, 도소매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인력난 현상이 심각함

■ **(원인) 과거 연해지역에 집중되었던 농민공들이 내륙 2선 도시로 분산되고 일자리의 질(소득 & 노동 강도)이 노동력의 향상된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인력난이 전국적 범위로 확산**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부 내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武漢, 南昌 등 중부 내륙 도시의 임금수준이 광주, 심천 등과 동등해짐
  - 2009년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동부 연해지역과 내륙 도시에서 농민공의 임금(月) 차이는 100위안 미만(1,455 : 1,389)으로 나타남

- 농민공들의 일자리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져 제조업 기업들이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기피하기 때문임
  - 특히 그 동안 중국의 의무교육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농민공 전반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됨
  - 중국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는 동관 지역은 생산직 인력 수요가 전체 인력 수요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함

■ **(전망) 향후 중국의 인력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진일보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인력난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중국의 취업구조는 생산직에서는 인력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대학 이상 학력자들의 취직은 여전히 어려운 아령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
  - 인력난 심화에 따른 비용(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저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중국의 인력난은 동부와 기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발전 불균형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 가능함

■ **(시사점)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도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 기술 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창의적 사고, 어떻게 할 것인가[4)]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음

■ 이에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

-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생각을 시각화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창의적 문제접근이 수월해질 수 있음

< 창의적 사고를 도와주는 원칙 >

원 칙	내 용
문제를 재정의하기	•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생각을 시각화하기	• 생각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명료해질 수 있음 – 수단의 예: Mind Mapping, Visual Brainstorming
풍부하게 생각하기	• 아이디어를 항상 메모하거나 연관 있는 주제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 – 수단의 예: SCAMPER이론 적용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기	• 구성요소들 간에 다양한 조합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관찰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수단의 예: SIL(문제 구성요소의 연속적인 통합)
무관한 요소들을 관련짓기	• '못과 집게를 활용한 봉사활동'처럼 전혀 연관 없는 요소들을 관련짓는 연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 습관을 익힐 수 있음 – 수단의 예: 무작위 단어 기법
상황의 이면을 보기	• 물리학의 '작용-반작용'의 원리처럼 모든 상황에는 상반된, 혹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는 가정으로 접근하기 – 수단의 예: 야누스적인 사고
찾고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 내가 찾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면 사고의 허점이나 보완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음 – 수단의 예: PIM(Plus, Minus, Interesting)
집단지능 일깨우기	• 집단지능은 개인의 지능보다 높아 집단적 사고를 통해 사고의 영역과 깊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 수단의 예: 그룹 브레인 스토밍 기법

4) "'대박 아이디어'는 경청에서 나온다"(매경ECONOMY, 2009.12.23) 참조 및 재정리

□ 소련 붕괴가 21세기에 주는 교훈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1997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칼럼을 통해 소련 붕괴의 원인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본주주의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던 “Capitalism's Mysterious Triumph”은 그의 그런 면을 잘 보여준다.

크루그만은 사회주의체제가 타고난 비효율성 때문에 처음부터 붕괴가 예정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전공한 학자에게서는 듣기 어려운 주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체제도 효율적일 수 있었던 증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단시간 내에 빠른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의 침공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각을 따른다면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체제라는 말은 소련의 경우 20세기 중반이후에나 적합한 문구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나중에 소련 경제의 비효율성이 이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뜻밖에도 크루그만은 그 해답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도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예를 들면 관료제)이 나타났지만 소련 국민 대다수는 체제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자세를 견지했다. 이로써 체제의 부정적인 효과는 상쇄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소련 국민들은 이러한 태도를 철회했다. 이로써 잠재해 있던 문제점들이 급속히 현실화되면서 위기와 붕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노력을 전체 체제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에 승리를 안겨준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다. 그리고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도 같은 경로를 따라 개인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더 잘 부합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였던 사회주의의 경우보다 더 오래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크루그만은 관료화를 피할 수 없으면서 전체를 위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기업과 사회주의체제가 유사한 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전자의 발전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신뢰가 후자의 경우만큼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즉 기업은 시장 한가운데 있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전체가 의도하는 바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신뢰에 기초한, 조직 전체를 위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 붕괴라는 더 이상 흥미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이데올로기라는 편견을 벗어나 새롭게 설명한 크루그만은 우리에게 21세기에도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구성원의 개인적인 이해와 조직에 대한 신뢰 간의 균형 잡힌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 : 미국의 과학자·정치인